

CBS 대전방송 개국 5주년 축하 메시지

CBS 대전방송의 개국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CBS 대전방송을 사랑하고 성원해 온 애청자 여러분, 또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애써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4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탄생한 기독교방송은 반세기의 연륜을 쌓아 왔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었던 암울한 시기에도 국민의 참뜻을 전하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CBS 대전방송 또한 기독교방송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위에서 지역사회의 복음화는 물론 바른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공정한 보도와 유익한 정보를 통해 늘 청취자들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공기(公器)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단체, 대학, 언론을 비롯한

모든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CBS 대전방송과 애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개국 5주년을 축하하며 CBS 대전방송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